과학고 조기졸업 비율 80%에 달해

과학영재를 육성해야 할 과학고가 조기졸업제도를 악용, 명문대 진학을 위한 '속진 코스'로 변질됐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 간 전국 17개 과학고는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80%가 넘는 학생들을 조기 졸업 시키는 등 조기졸업제도를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과학고□영재학교 조기졸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7개 과학고등학교 졸업생 6258명 중 2학년 조기졸업자수가 무려 505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해 평균 1010명으로 과학고 2학년 재학생 80% 가량이 3학년 과정에 편성된 전문교과과정을 듣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과학고의 경우 지난해 졸업생 85명 가운데 3학년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은 8명에 불과했고 2학년만 마치고 조기졸업한 학생이 77명(91%)에 달했다. 대전과학고는 2008년 이후 해마다 90%에 가까운 학생을 조기졸업시켜왔다. 충북과학고 역시 조기졸업생이 2008년 35명, 2009년 34명, 2010년 36명, 2011년 34명, 2012년 41명 등으로 매년 조기졸업생의 비율이 전체의 76%~81%에 이른다. 인천과학고도 2008년 84명, 2009년 77명, 2010년 84명, 2011년 81명, 2012년 79명 등 매년 86~93%에 달했다.

과학고의 조기졸업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서울 주요대학이 조기 졸업자를 받기 시작한 2006학년부터. 2003학년엔 48%에 불과하던 과학고의 조기졸업률은 2012학년 80%로 두 배 가량 뛰었다. 2004학년까지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만 조기 진학할 수 있었지만 2006학년부터 주요대학이 조기졸업자에게 '졸업예정자' 자격을 부여, 수시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과학고 학생들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수업연한을 단축시켜 졸업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단, 조기졸업자로 선정된 2학년 재학생들은 3학년 교과과정의 이수를 인정해주는 시험(조기이수인정평가)을 통과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과학고가 대입 수시전형(매년 9월 전후)의 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11월에서 12월 초에 조기이수인정평가를 진행한다는 것. 사실상 학생들의 대입수시전형 준비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소리다.

조기이수인정평가를 늦게 치르면 수시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은 조기졸업 대상 학생을 이수인정평가에서 탈락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와 학생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학고측이 대학합격자들이 평가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과학고 조기졸업 이수인정평가 운영 부적절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과학고 2학년 상당수가 3학년 전문교과과정을 실제 수강하지 않고 있다"며 "이수인정평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일반고와 똑같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정도만 학습하고 조기 졸업해 손쉽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과부가 과학고의 조기졸업제도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졸업제도 편법 운영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수인정평가의 내실화를 각 학교에 주문한 상태"라며 "그 외에 별다르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한 과학고 관계자 역시 "과학고는 표준 교육과정을 따르는 대신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학고 조기졸업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과학고 과학영재학교의 수가 적은 대신 원하는 대학들이 많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졸업생은 적은데 원하는 학교는 많다 보니 이공계에선 대학이 갑, 학생이 을이라는 상식이 뒤집힌 지 오래다. 올해 모집 기준으로 전국 영재학교 과학고의 전체 정원은 2060명(전국 4개 영재학교 480명, 19개 과학고 1580명) 수준이다. 졸업기준으로 하면 훨씬 줄어든다(작년 2개 영재학교 졸업생 240명 안팎, 18개 과학고 졸업생 1440명 안팎).

여기에 자연계 최상위권을 구성하는 의치한의대가 과학고 영재학교 등 이공계 영재 영입의 문을 열어 놓고 상당 자원을 빼간다. '의치한'은 자연계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미 서울대를 정상에서 밀어낸 지 오래다. 지난해 서울대 수시 합격자의 한 학부모는 의대 진학을 위해 서울대 합격 취소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올해 의치예 학부의 정원은 1770명 수준. 학부 선발인원은 2015학년에는 2965명, 2017학년에는 3646명으로 점진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 다음 자연계 상위권인 서울대 자연계열과 4개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올해 입학정원은 모두 3691명. 서울대 자연계열(의대 제외) 모집 정원은 1600명 안팎. 4개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2091명(GIST 110명, KAIST 900명, 포스텍 326명, UNIST 755명)을 선발한다. 영재학교 과학고 출신들은 이미 일부가 의치한으로 빠져나간 가운데 서울대 자연계열과 4개 특성화대학을 채우는 상황이어서 여기서도 공급이 달릴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대 연대 고대는 물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너도나도 수시에 과학영재전형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학들은 과학영재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조기졸업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진학이 가능하도록 해둔 셈이다.

입학 문턱이 낮기는 의대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의 경우엔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에게도 학교장 추천서를 요구하지만 다른 대학이나 특히 지방의대의 경우엔 추천서조차 받지 않고 학생을 끌어간다"고 전했다. 일부 의대들이 이공계 영재 쟁탈에 나선 단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우희 기자 woohee@veritas-a.com

서울대 수시 특기자전형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대거 합격 논란

올해 서울대 수시의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들의 출신학교 분석결과, 과학영재학교 출신의 합격률이 66%, 과학고 출신이 28%에 달했다. 일반계고의 13.6%의 2배,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학년 입학사정관 지원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2012학년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 중 영재학교 졸업생의 합격률은 65.9%다. 영재학교 출신 지원자 185명 중 122명이 합격했다. 특목고에서는 과학고 28.2%(769명 지원 217명 합격), 외고·국제고 12.7%(1302명 지원 166명 합격)의 합격률을 보였다. 일반계고는 13.6%(1만877명 지원 1477명 합격)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일반계고의 합격률이 외고 국제고보다 높은 것은 공주한일고등 전국단위 자율학교가 상당부분 일반계고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목고와 영재학교를 통틀어 합격률은 22.4%(2256명 지원 505명 합격)로 일반계고 비해 훨씬 높았다.

서울대가 2012학년 입시에서 실시한 입학사정관전형은 지역균형선발, 특기자전형(2013학년 일반전형), 기회균등전형 등.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 구술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학교당 2명 추천이 가능한 지균과 사회적 약자의 특별전형인 기회균등을 제외한다면 자연계열의 경우 특기자전형에서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이 대부분 선발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연계열 수시 특기자전형은 수능 최저등급이 없이 구술로 진행되면서 아예 영재학교와 과학고 출신 문호를 겨냥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아왔다. 올해 서울대가 수시를 100% 입학사정관제로 진행하면서 입학사정관선도대학으로 지정돼 지원받는 예산은 20여 억원. 서울대는 올해 역시 자연계열에서 수능 최저등급없이 수시를 진행하는 탓에 영재학교 과학고 출신들의 합격률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재학교·특목고 출신의 합격비율이 높은 학교는 서울대에 이어 홍익대 한국외대 경희대였다. 예고출신이 대거 진학하는 홍익대는 영재학교·특목고 출신의 합격자 비율이 28.6%, 일반계고는 20.5%였으며, 외고국제고 출신들이 선호하는 한국외대는 영재학교·특목고 17.6%, 일반계고 11.1%였다.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의 한의대 지원경향이 뚜렷한 경희대는 각 12.1%와 10.5%였다.

/조진주 기자 jjj@veritas-a.com

북일고·용인외고 특성화프로그램 자율고 최고 평가

전국단위 자율고 가운데 북일고와 용인외고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율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계획'에 따르면 북일고와 용인외고는 심사에 참여한 전국 50개 자율고 가운데 특성화 프로그램이 가장 우수한 7개교에 포함됐다.

최우수 7개교에는 전국단위 자율고인 북일고와 용인외고 외에 중앙고(서울) 용문고(서울) 대건고(대구) 숭덕고(광주) 남성고(전북)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각 45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우수학교에 선정된 36개교는 4000만원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받는 7개교는 3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번 심사는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내실화와 자율고 제도의 착근을 위해 추진됐다. 교과부는 건학이념과 자율고 지정 취지를 가장 잘 살린 학교를 심사해 22억원의 특별예산을 차등 지급했다. 교과부의 중점평가 항목은 ▲건학이념 및 자율고 지정 취지에 맞는 비전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 교육 현황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입학전형 방법의 적절성 ▲학교 재정 운영의 타당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 등이었다.

심사는 약 6개월 간 진행됐으며 자율고 운영 현황 및 만족도 조사, 학교 현장 방문 컨설팅, 자율고와 컨설팅팀 공동 워크숍,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학교별 계획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며 내년 6월경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외고는 수도권에 위치한데다 외고시절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단 번에 전국단위 자율고의 강자로 떠오른 학교다. 방과후 선택교육과정(Elective Tracks)과 120여 개에 달하는 동아리활동으로 유명하다.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돋보이는 학교는 북일고. 북일고는 한화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육학 박사 출신 교육전문가 강익수 교장의 영입을 통해 최근 '제2의 개교'를 내걸고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한화계열 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하는 과제연구 논문 작성, 인근 단국대 첨단과학 연구소와 함께하는 대학연계 R&E, 한중일 3개국 학생이 함께하는 국제협력 R&E, 주당 2~4시간 편성된 '1인1예1체' 수업, 학생 자율의 41개 다양한 동아리활동, 21개 지역기관과 협약해 2년간 지속적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이 있다. 강력한 학교 발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강 교장은 "완벽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10년 내 최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우희 기자 woohee@veritas-a.com